

성공대회 발목잡는 FOM ... 불합리한 계약조건부터 바꿔야

〈포물러먼매니지먼트〉

F1 지속가능 대회 만들려면

스폰서 맘대로 못잡고 기업별 입장권도 불가능 세계 4번째 ... 비싸도 너무 비싼 입장료 낮춰야

올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5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를 40%가량 깎는 등 적자 탈피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 하지만 모두 7차례 열리는 F1 한국 대회는 올 4회째를 맞아 반환점을 돌게 됐지만 국내에서 마음대로 스폰서를 정하지도 못하는 등 포물러먼매니지먼트(FOM)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또 F1이 열리는 세계 19개국 중 한국 대회의 입장료가 4번째로 비싸 F1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규정으로 스폰서도 구할 수 없어=올 대회 개막을 앞두고 F1 조직위원회는 SK와 12억원 규모의 메인스폰서 계약을 추진했지만 FOM 측에서 “개회권료 협상이 늦어지고 있어 스폰서 계약을 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FOM과의 불합리한 계약에 따라 전남도는 마케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을 섭외해도 FOM 측이 규정을 내세워 계약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계약에 따라 10인 이상이 F1 팀을 응원하는 단체복 이외의 기업이나 여러 단체의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도 없게 됐다. 전남도가 판매 효과가 큰 기업별 입장권을 만들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가 FOM 측과 맺은 규정에 따르면 FOM이 맺은 메인스폰서 계약은 FOM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고, 전남도가 성사시킨 메인스폰서의 수익 절반도 FOM의 몫이다. 이처럼 내년 대회를 앞두고 개최권료 추가 협상 못지 않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 등

을 손보는 작업도 시급하다.

◇비싸도 너무 비싼 한국대회=올해 영암 F1 서킷 인근의 슈퍼마켓에서는 F1 티켓을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관심을 받았다. 또 F1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넷에는 F1 입장권을 40~60%가량 싸게 팔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해마다 기업체·단체를 통한 판매가 낮은 해프닝이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 대회부터 아예 F1 티켓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한국 F1 입장권(89만원)은 메인스탠드 기준으로 브라질(121만1000원), 싱가포르(103만3000원), 일본(93만6000원)에 이어 4번째로 비싸다. 이는 F1 대회를 열고 있는 19개국 평균 가격인 67만900원에 비해서도 21만원가량이 비싼 셈이다.

F1 조직위는 이 같은 가격으로 3일 대회기간 영암 서킷(10만8000석)을 가득 채웠을 때 최대 354억원의 수익이 나고, 가격을 50% 낮추면 170억원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관람객 수는 16만명 수준이며, 이에 따른 수입도 120억원대에 머물고 있어 차라리 입장료를 할인해 더 많은 관람객을 모으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장권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 평균 1명당 고작 7만5000원의 입장 수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입장권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춰 기업체·단체를 통한 판매가 아닌 제값 주고 찾아오는 팬층을 늘리자는 것이다.

입장료 가격을 낮추는 것은 기업체와 단체에 입장권이 강제 할당된 뒤 정작 F1을 보려는 관람객에게 반값에

되팔리는 악순환을 끊고, F1 팬층을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장점도 있다.

◇적자 탈피 시급=F1은 경주장 건설 등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었고, 매년 대회를 치르기 위해 743억~91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제행사다. 전남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F1 대회는 총 사업비 1조288억원이 투입됐고, 경기장 건설과 대회운영비 등으로 100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F1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72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1년에도 610억의 적자가 났다. 지난해에도 국비와 기금 등 75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396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 3개 대회의 누적 적자만 1731억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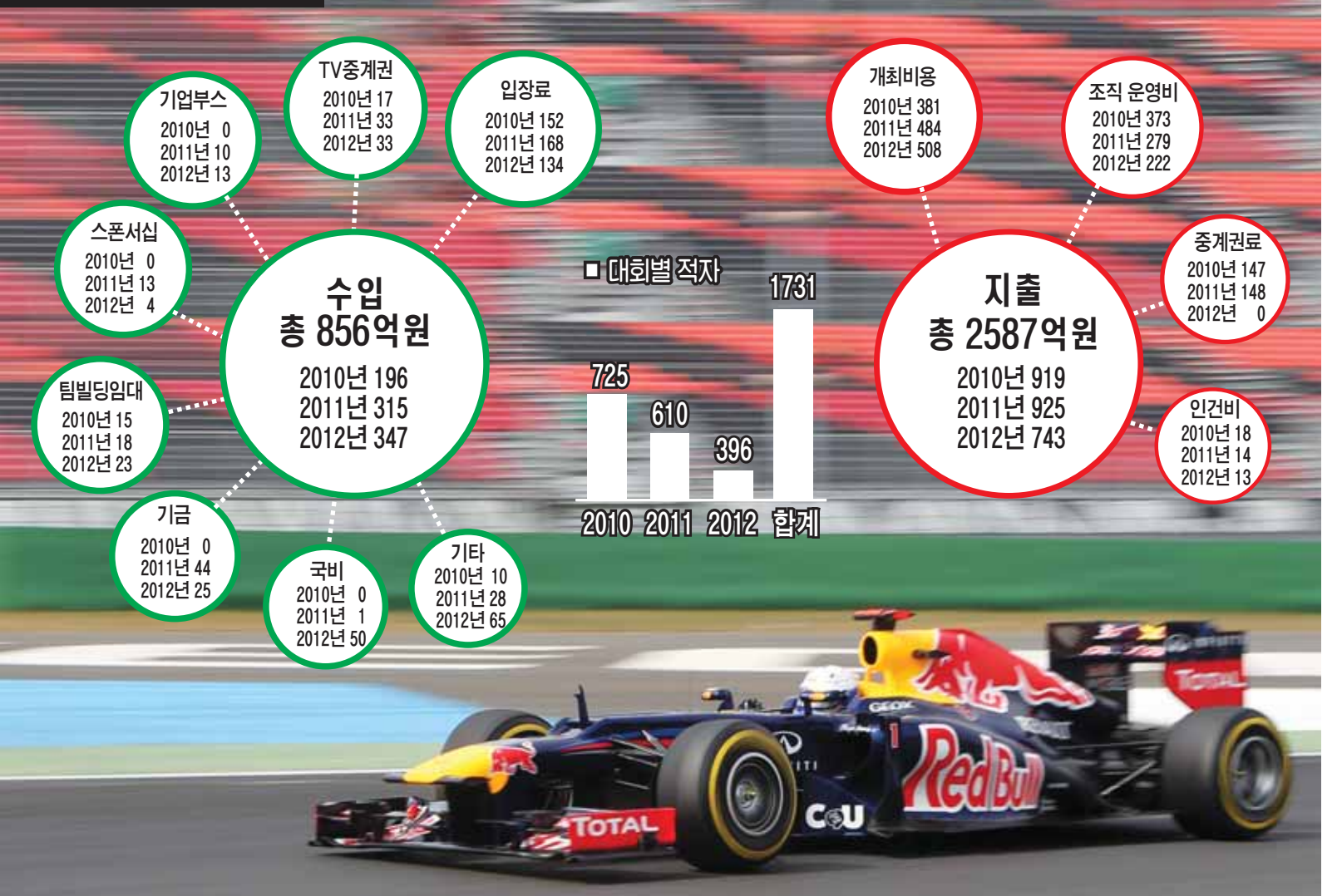
반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의 유무형 효과와 8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하는 등 F1 개최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F1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개최권료는 포물러먼매니지먼트(FOM)와의 협상을 통해 인하했고, 추가 협상을 통해 더 깎는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기업부스, 스폰서십을 통한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3차례 대회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수익은 40억원에 불과했다. 입장권 수입에 한계가 있다면, 기업부스와 스폰서십을 늘려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속제도 남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1 재정수지 현황 (단위:억원)



“적자 줄이고 효과 극대화 방안 찾겠다”

박준영 지사 기자회견



남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서 공직자와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아줘 지역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회 개최로 유럽 인구의 40%에게 전남과 영암을 각인시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13 F1대회 개최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F1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요구하는 4월 개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F1대회는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연간 200억원대 적자는 지역에 돌아오는 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때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 -4회 대회를 치렀다.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민을 비롯해 국민들이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성원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F1대회는 전

매년 10월에 열리는 코리아그랑프리가 내년에는 4월로 앞당겨 진다는 얘기가 들린다.

▲FIA측은 신규로 대회를 여는 나라는 대개 10월에, 기존 나라는 4월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가 제시한 5월을 고려해 FIA측이 4월 말로 결정한 거 같다. 대회 준비와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4월 개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F1대회 운영사(FOM)와 올해 개최권료 협상에서 40%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개회권료 협상 내용 공개는 FOM과의 협약사항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개할기로 한 만큼 이해해 달라. 황간에는 FOM과 전남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토론회와 논쟁은 있어도 갈등관계는 아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자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해결 방안은 없는가.

▲F1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자는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초 FOM과 계약을 할때 민간기업들 통해 F1을 치르고 3년 동안은 개최권료를 전남도가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20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앞으로도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고무적인 것은 F1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 비율이 매년 20%씩 늘어나는 등 레저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폭이 많이 줄었고 운영비 역시 예전에는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국내 및 전남도민(대회 종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F1경주장을 연계해 차 부품 고급브랜드와 및 자동차 튜닝 핵심기반 구축사업이 올해와 내년엔 잇따라 착수되는 만큼 이를 통해 수제차 제작에 뛰어들면 세계적 수제차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능가하는 차량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 하세요!

-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 비타민 B군 일일권장량 100% 함유
-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 설당,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병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혼합 베리맛)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구입문의 1588-8529

빛의만평

-김종두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온다